

國內外 經濟興件의 變化와 타이어産業

韓 振 奎*

1. 1992년의 회고

1992년은 우리 경제의 잠재력에 의문을 갖게 한 한 해였다. 1992년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5% 수준으로서 1990년의 9.3% 및 1991년의 8.4%를 크게 하회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경제성장률이 3%선으로 급락하는 등 경기냉각분위기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소위 스테크네이션(Stagnation)에 대한 우려마저 대두된 바 있다.

또한 선진국들의 경기부진과 수입규제,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 약화현상 등으로 인해 1992년도 우리나라의 수출은 전년대비 6.8%가 증가한 768억달러에 머문 반면, 수입은 일반 소비재의 수입감소에도 불구하고 원유와 양곡, 일반기계류의 수입증가에 따라 1992년과 유사한 817억달러에 달하였다. <표 1>에는 통계자료 입수가 가능한 1992년 1~11월까지의 지역별 수출현황이 정리되어 있는데 미국, 일본, EC 등 주요시장에 대한 수출은 모두 감소세를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우리나라의 수출실적(주별)

(단위: 100만달러, %)

주 별	1990		1991		1992.1~11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총 수출	65,016	4.2	71,870	10.5	69,668	8.6
아시아주	24,639	3.2	28,477	15.6	29,874	16.7
(일 본)	12,638	-6.1	12,356	-2.2	10,619	-5.4
중동지역	2,619	13.4	3,310	26.4	3,143	10.3
유 럽	12,034	28.3	12,773	6.1	10,723	-6.3
(E C)	8,876	19.7	9,728	9.6	8,451	-3.5
(동유럽)	509	104.1	537	5.4	307	-38.5
북미주	21,091	-6.4	20,232	-4.1	17,931	-2.2
(미 국)	19,360	-6.2	18,559	-4.1	16,458	-2.1
중남미주	2,104	20.9	2,879	36.9	4,520	81.1
아프리카주	915	-0.9	2,429	165.4	1,740	-5.8
대양주	1,214	-6.1	1,229	1.2	1,232	9.3
미분류	401	21.1	541	35.0	511	6.3

자료: 한국무역협회 DB

이같은 침체국면중에서 타이어산업이 시현한 성장세는 괄목할 만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타이어업계는 1992년중 15.5%가 신장된 국내 자동차 수요와 수출증가 등에 힘입어 15% 이상의 매출신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수출부문에서는 1991년의 부진에서 탈

*産業研究院 動向分析室 責任研究員

피, 18.4%에 달하는 급속한 신장세(1~11월 실적)를 보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타이어 및 튜브류의 11월말까지의 수출실적은 약 9억 5,000만 달러로서 경공업제품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수출신장세를 보인 바 있다.

지역별로는 EC에 대한 수출이 38.6% 증가함으로써 약 1억 9,000만달러에 달하였으나, 단일

〈표 2〉 우리나라의 수출실적(상품구조별)
(단위: 100만달러, %)

구 조 별	1990		1991		1992.1~11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총 수출	65,016	4.2	71,870	10.5	69,668	8.6
1 차 산 품	3,246	-4.2	3,326	2.5	2,955	-1.2
공 산 품	61,770	4.7	68,544	11.0	66,720	9.0
(경공업제품)	25,055	2.3	25,485	1.7	23,108	0.1
섬 유 류	14,670	-3.1	15,478	5.5	14,374	2.6
신 발	4,307	20.1	3,836	-10.9	2,899	-16.6
완구및인형	726	-17.9	609	-16.2	388	-31.2
타 이 어	873	14.8	898	2.9	950	18.4
(중화학제품)	36,715	6.5	43,059	17.3	43,611	14.5
전기, 전자	17,870	4.3	20,157	12.8	19,655	7.9
철강 제품	4,237	-1.4	4,509	6.4	4,827	20.0
차 동 차	1,920	-9.5	2,315	20.6	2,418	19.8
선 박	2,799	56.7	4,124	47.3	3,908	20.0
일반 기계	1,775	26.1	2,338	31.7	2,177	5.9

자료: 한국무역협회 DB

〈표 3〉 타이어 및 튜브류의 10대 수출대상국과 수출규모 추이
(단위: 1,000달러, %)

국 가	1991		1992. 1~11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EC	155,578	-4.6	191,565	38.6
미 국	191,339	-15.0	188,017	10.7
사우디아라비아	80,949	21.2	65,704	-8.7
캐나다	53,443	1.0	46,993	-12.2
독 일	34,995	-4.9	46,984	50.7
영 국	38,788	14.1	46,751	39.8
오스트레일리아	40,444	15.0	44,508	20.5
일 본	34,180	6.0	30,502	-2.9
아랍에미리트	28,916	117.0	27,798	8.4
이탈리아	18,915	-20.0	24,213	44.9
멕시코	18,607	110.0	23,410	41.6

자료: 한국무역협회 DB

국가로서는 미국에 대한 수출이 이와 유사한 1억 8,800만달러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역별 수출추이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은 사우디아라비아 및 일본, 캐나다 등지에 대한 수출이 감소한 반면 EC 각국과 멕시코에 대한 수출이 급속한 신장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타이어산업이 이같은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타이어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국내외의 주요 경제여건 변화를 전망해 보고 타이어산업이 받을 영향과 대응전략을 간략히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와 타이어산업

(1) 세계경제의 경기회복세 본격화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국가의 성장정도는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히, 총수요의 60% 이상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타이어산업의 경우 세계경제환경의 변화가 미치는 파급효과는 더욱 크다.

1993년도중 우리나라의 타이어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칠 세계경제환경은 그동안 침체양상을 보여온 세계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점과 국제무역환경이 급속히 변화할 것이라는 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계경제성장은 수출증가와 이에 따른 국내 유관부문의 내수증가를 유발한다. 아울러 생산증가에 따른 규모(規模)의 경제 실현, 수출과정에서의 학습효과, 투자재원의 확충 및 공급능력의 향상 등과 같은 2차적 효과들이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성장의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1993년도중 세계경제는 1989년 하반기 이후의

경기하강국면에서 탈피,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1993년의 세계경제성장률은 2.8% 안팎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선진국의 경기부진을 초래했던 제반 요인들이 점차 개선되고 구소련(舊蘇聯)을 제외한 사회주의권도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면서 그동안 높은 성장세를 보여온 개발도상국들의 성장세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에 기인한다.

우선 1992년중 1.6% 성장에 그친 선진국의 경제는 1993년에는 2.4%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 경기회복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국들의 성장률은 미국이 3.0%, 프랑스가 2.5%, 일본과 독일은 각각 2.4%와 1.0%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타이어산업의 최대 해외시장이자 전세계 GNP의 20% 이상을 점하고 있는 미국경제의 성장회복세는 매우 두드러질 전망이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대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와의 협조도 원활히 이루어져 정책의 효과는 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부문에서도 1992년 두차례의 지불준비율 인하와 예대금리차 확대에 힘입어 금융부문의 수익이 호전되고 있고, 민간부문의 부채부담도 경감되고 있어 금융경색이 완화될 전망이다. 그 결과 1993년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금리인하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민간의 소비 및 투자심리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간소비지출의 경우에는 증가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미국 컨퍼런스 보드(Conference Board)의 소비자신뢰지수도 1992년 9월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12월에는 55.9를 기록, 11월에 비해 5.9포인트 상승하여 소비심리가 최근들어 크게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미국 상공회의소의 기업경영심리지수(지수 50 이상은 경기확대)도 작년 12월에 62.4를 기록하는 등 경영심리도 크

게 호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93년도에는 기업의 고정투자도 생산성향상투자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시현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선행지수의 추이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져 미국의 경기선행지수는 1992년 10월과 11월에 각각 0.5%와 0.8%가 급승하여 향후 미국 경제의 회복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이같이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는 경우 소비자들은 막대한 부채부담과 고용사정 악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지금까지 미루어왔던 내구재 소비(耐久財消費)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며, 이중 대표적인 품목이 자동차이다. 아울러 사회간접자본의 대대적 확충은 상용차의 수요증가를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미국시장에서는 1993년도중 상당한 수준의 타이어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여타 선진국들과는 달리 버블경제(Bubble 經濟)의 붕괴와 설비투자 및 재고조정의 부담을 지니고 있는 일본과 통독(統獨)에 따른 충격을 겪고 있는 독일경제는 구조조정노력이 당분간 지속됨으로써 1993년도에 과거와 같은 큰 폭의 경기확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1992년도중 큰폭의 타이어 수출증가가 이루어졌던 독일과 1992년도에도 수출이 감소한 일본지역에 대한 타이어 수출증가는 기대하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992년에 선진국들의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4.7% 내외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개발도상국경제는 1993년도에 세계경제의 회복에 힘입어 5.5%의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경제권별로는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높은 성장세가 예상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6%를 훨씬 상회하는 고도성장이 예상되는데, 이는 NICs 국가들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ASEAN 지역에서도 각국의 금융긴축기조의 완화조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및 세계경제의 성장회복에

따른 수요증가 등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판단에 기인한다. 또한 경제안정화정책의 성공으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는 중남미국가들도 1993년에는 외국인투자의 증가, 수출증대 지속 등의 대내외적 경제여건의 호전으로 4% 내외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중동 산유국경제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의 견조한 성장세와 쿠웨이트의 전후복구사업 등에 힘입어 대체로 8% 수준의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 다만, 아프리카경제는 선

진국으로부터의 원조 및 직접투자 감소추세와 농업생산의 부진 등 구조적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1993년에도 2~3% 수준의 낮은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규모의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개발도상국권 및 1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중국 등은 1993년 우리나라 타이어 수출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주요국의 실질 GDP 성장을 전망

(단위 : %)

국 가	1990	1991	1992					1993				
			DRI	WEFA	IMF	OECD	KIET	DRI	WEFA	IMF	OECD	KIET
세 계	2.3	0.1	-	0.9	1.1	-	0.8	-	3.1	3.1	-	2.8
선 진 국	2.4	0.6	-	1.7	1.7	1.5	1.6	-	2.8	2.9	2.1	2.4
미 국	0.8	-1.2	1.8	1.8	1.9	1.8	1.9	2.8	2.7	3.1	2.4	3.0
일 본	5.2	4.4	2.5	2.2	2.0	1.8	2.0	3.5	3.4	3.8	2.5	2.4
독 일	4.5	0.9	-	1.5	1.8	1.2	1.0	-	2.3	2.6	1.5	1.0
프 랑 스	2.2	1.2	1.9	2.2	2.2	-	2.0	1.5	2.3	2.7	-	2.5
영 국	1.0	-2.2	-1.1	-0.8	-0.8	-	-1.0	0.9	2.0	2.1	-	1.5
개 도 국	3.6	3.2	-	4.4	6.2	-	4.7	-	5.4	6.2	-	5.5
공 산 권	-1.5	-9.7	-	-6.3	-16.8	-	-7.0	-	1.6	-4.5	-	1.0

자료 : DRI, *International Financial Bulletin*, Oct. 1992.

WEFA, *World Economic Outlook*, Oct. 1992.

IMF, *World Economic Outlook*, Sep. 1992.

OECD, *The Economic Situation in the OECD*, Nov. 1992.

(2) 국제무역질서의 급변

최근 과도기적 상황을 보이고 있는 국제무역질서는 1993년도중 급격한 변화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변화는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 EC의 단일시장 형성, 북미자유무역협정의 본격화와 같은 요인들이 주도할 것이며, 미국 신정부에 의해 전개될 통상정책의 방향과 국제적인 환경보호논의 등은 국제무역질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변수로는 역시 금년중 타결이 예상되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이후의 새로운 세계무역질서, 즉

범세계적 자유무역체제(汎世界的自由貿易體制)의 형성을 지향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미국과 EC간의 농산물보조금 감축문제로 인하여 타결이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무역질서는 국제정치적 영향을 크게 받으며, 자국이익 최우선의 새로운 대외통상정책(對外通商政策)을 추진할 미국의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타결전망은 더욱 밝아지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면 세계교역규모가 연간 2,000억달러 정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세계 12위의 무역국인 우리나라, 특히 제조업 부문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우루과이라

운드 협상의 내용중에는 관세율의 인하와 비관세장벽의 점진적 제거 등과 같은 내용도 포함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타이어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특히, 수요증가가 크면서도 고율의 관세장벽, 비관세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지역에 대한 수출에는 매우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협상의 내용에는 정부보조금 지급의 제한, 지적소유권 보호 강화와 같이 타이어산업의 성장제약요인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1993년도에는 이같은 범세계적 무역자유화조치와 아울러 인접국가들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주의(地域主義) 역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C는 1993년 1월 1일을 기하여 단일시장 형성을 선언한 후 역내교역(域內交易)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제거해가고 있다. 이에 더하여 EC는 통합과정에서 이미 역외국가들에 대한 수입쿼타, 원산지규정 등을 강화하고 EC에 진출해 있는 역외국가들의 기업에 대해서도 부품사용의무규정(部品使用義務規定)을 강화한 바 있다.

EC통합에 대응하고 약화된 미국의 국제경제상 지위(國際經濟上地位)를 회복하기 위하여 미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북미자유무역협정(北美自由貿易協定)은 1992년 8월 타결된 뒤 1993년중에는 가맹 3국(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비준(批准)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3개국은 산업발전단계가 상이하고 생산요소의 부존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상호보완적 산업분업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산업경쟁력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 경향의 확산은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변되는 범세계적 자유무역질서 형성과 상충되는 요인으로 당분간 국제무역환경 개선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역주의에 의한 배타성, 즉 무역장벽 구축효과(貿易障壁構築效果)는 섬유, 자동차, 전자 등

우리나라 주종 수출상품의 해당지역 시장접근을 어렵게 만들 것이 자명하며 타이어산업의 수출 확대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3. 국내경영여건 변화의 파급효과

(1) 경제활력의 회복

1993년도 우리 경제는 앞에서 이미 살펴본 세계경제의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증가, 신정부 출범에 따른 경기회복심리,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6% 이상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약 2.8% 수준에 달하는 세계경제성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 수출수요가 약 6%(약 40억달러) 증가하는 효과를 야기한다. 아울러 수출수요의 증가는 전후방연관효과(前後方聯關效果)를 통하여 내수를 증가시키는데, 세계경제성장의 결과로 발생할 총 5조 7,000억원의 국내생산 증가분중 약 2조 7,100억원은 이같은 간접효과에 기인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992년도 3/4분기에 전년대비 3.2%가 감소하는 등 극심한 부진세를 보여온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이같은 경기회복세 이외에도 시장실세금리의 하락, 건축규제 완화 및 신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심리 등에 힘입어 1993년도중 7~8% 수준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에 제조업의 생산이 늘

〈표 5〉 주요 경제기관의 1993년도 국내 경제전망
(단위: 억달러, %)

구 분	KDI	한국은행
실질 GNP 성장률	6.4	5.8
총 소 비	5.9	5.8
경상수지	-3.2	-2.8
무역수지	-2	5
수 출	831	836
수 입	833	866
소비자물가상승률	5.5	5.3

자료: 한국무역협회 DB

어나고 이것이 수출증대로 연결된다면 1993년도 우리 경제는 다소나마 활력을 되찾게 될 것이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전기·전자, 철강, 시멘트 산업의 경기호전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전망이다 반면, 조선, 섬유 및 가죽, 제지산업 등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석유화학, 신발산업 등의 경기는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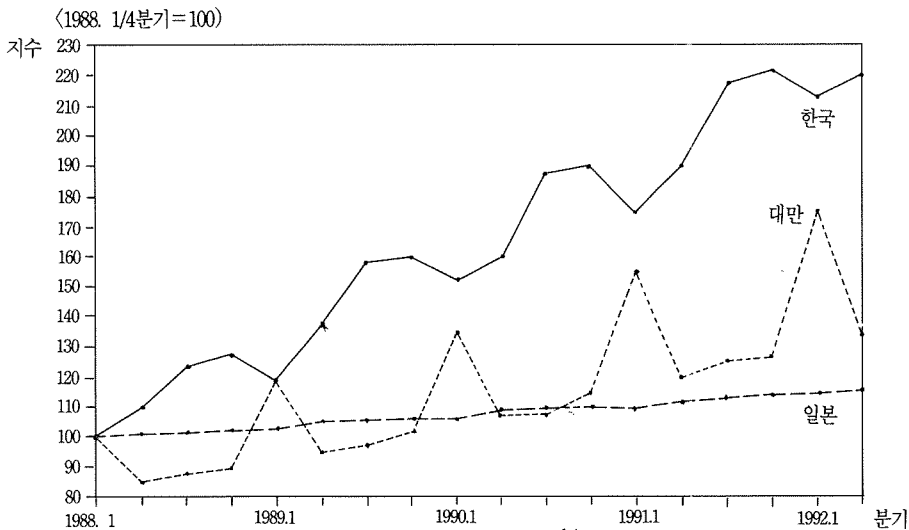
타이어산업과 특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동차산업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생산능력을 확충해 왔는데, 1993년도에는 수출이 1992년 대비 14% 증가한 50만대 수준에 달하고, 내수는 145~150만대에 달할 전망이다. 내수부문중에서는 특히 승용차부문의 수요신장세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승용차 내수는 금년도중 100만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상용차는 11~12%의 수요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2) 채산성 결정요인의 호전

1993년도에는 시중실세금리(市中實勢金利)와 실질통화(實質通貨) 등 시중자금사정, 임금 및 물가와 같이 타이어산업의 채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중실세금리를 대표하는 회사채유통수익률(會社債流通收益率: 3년만기 기준)은 1991년말 19.4%에서 1992년 11월 30일에는 13.8%로 5.6% 포인트 하락하는 등 지속적 안정세를 견지해 왔다. 이러한 추세는 1993년도에도 지속되어 회사채유통수익률은 13% 미만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1993년도중 우리나라의 도매물가 상승률은 2~3%선에 머물 전망이다, 이에 따른 실질통화 공급의 안정으로 기업의 자금조달은 비교적 용이해질 전망이다. 1993년도에는 이와 함께 증권시장도 침체에서 완전히 벗어나 직접자금조달의 가능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은 1992년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1993년 상반기까지 국산기계구입자금, 수출산업설비자금 및 유망중소기업 등에 대해 5조 4,500억원에 달하는 설비투자자금을 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설비투자를 위한 재원조달은 비교적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수출산업설비자금(輸出産業設備資金)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외화대출한도제(外貨貸出限度制)를 폐지하고 용자대상도 모든 제조업설비로 확대한 바 있다.



〈그림 1〉 한국, 일본, 대만의 임금지수 추이

그동안 임금부문에서 진행되어온 「코스트 푸쉬효과」는 총액임금제의 실시유도 등 강력한 시책에도 불구하고 1992년중에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2년도 우리나라의 명목임금상승률은 약 16%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는 대만, 홍콩 및 일본 등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해 볼 때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현시점에서 1993년의 임금상승률을 전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GNP 기준 생산성증가율(9% 내외)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3) 환율안정

환율변동은 수출물가에 전가(Path-Through)되어 즉각적이며 직접적인 수출수요 변화를 야기한다. 다만, 이 전가의 정도는 기업의 경영전략, 국가별 경쟁관계, 수출수익률 등 제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된다.

1992년도중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연평균 779.7에 달하여 급속한 상승세를 시현했다. 이를 분기별로 살펴보면 1991년 4/4분기에 753.2였던 대미환율은 1992년 1/4분기에는 766.5, 2/4분기에는 783.4로 급등세를 시현했고, 3/4분기에는 787.3에 머문 후 4/4분기에는 783.8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같은 환율의 움직임과 금년중 무역수지가 균형부근에 달할 것이라는 점, 아울러 물가안정세가 두드러지고 이미 실효환율이 우리 경제의 성과가 높았던 1988년의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년중 대미달러 환율은 790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환율변동이 타이어산업의 수출에 미칠 효과는 매우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1% 수준에 머물 환율상승은 약 0.5% 수준의 수출물가 하락을 가져올 것이나, 이와는 반대로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0.3% 수준의 제조원가 상승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4. 평가 및 시사점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타이어업계가 직면하게 될 1993년도의 경영여건은 1992년보다 호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별다른 돌발변수가 없는 한 경영실적 역시 1992년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나라의 타이어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영여건에 안주하기 보다는 보다 진취적인 자세로 세계 최대의 타이어 공급국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생산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노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경영여건의 호전에 따른 여력을 기술개발투자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에 투입하는 것은 미래의 성장을 위한 초석이 되는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국제경쟁력의 향상으로 귀착되어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지속되어온 해외시장다변화 노력은 배가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마케팅전략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결체통화의 다양화를 통하여 안정적인 가격경쟁력을 확보한다든지, 거래방식도 기존의 L/C 방식 일변도에서 탈피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타이어산업은 국내에 생산거점을 둔 수출입, 기술도입과 같은 소극적 국제화활동에 치중해왔으나, 앞으로는 원자재구매, 제품판매만이 아니라 생산 및 R & D 활동 등도 생산요소별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세계적으로 배치하는 적극적 국제화도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시장다변화와도 연관된 문제로서 오늘날과 같이 범세계화된 경영여건하에서는 생산거점을 둔 수출입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